



## 파인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의 만남으로 새롭게 탄생한 예거 르쿨트르의 두 가지 101 모델

예거 르쿨트르는 2020년, 다시 한번 칼리버 101을 전면에 내세운 두 가지 새로운 하이 주얼리 워치를 출시합니다. 두 가지 타임피스는 탁월한 메커니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하이 주얼리와 파인 워치메이킹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선보입니다.

1929년, 그랑 메종은 주얼리 워치에 장착하기 위해 직접 고안하고 개발한 독창적인 형태의 칼리버 101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계는 소형 사이즈와 바게트 모양으로 제작되는 등 디자이너들에게 미학적 자유를 선사하며 여성 워치메이킹 분야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및 제작 기술이 시작되기 반세기 전에 개발된 칼리버 101은 극도의 소형화라는 놀라운 목표를 달성합니다. 길이와 너비, 무게가 각각 14mm, 5mm 미만 및 1g에 불과한 초소형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로 남아 있으며, 지금까지도 제작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브먼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칼리버 101은 계속해서 예거 르쿨트르의 이름을 새긴 주얼리 워치 그리고 다른 저명한 메종의 작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귀한 타임피스는 1953년 대관식을 위해 프랑스 대통령이 보낸 선물을 착용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같이 위엄 있는 여성들의 손목에 우아한 품격을 더해왔습니다.

###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표현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두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에서 예거 르쿨트르 예술팀은 먼저 브레이슬릿 형태와 쟈세팅 스타일을 디자인한 다음,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디자인에 통합시키는 주얼리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보통의 시계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로 케이스를 먼저 디자인한 다음, 그에 맞는 브레이슬릿이나 스트랩을 제작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엄선된 IF ~ VVS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두 가지 브레이슬릿 모두 클래식 하이 주얼리 코드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다른 형태와 특징을 지닌 디자인을 적용하여 초소형 칼리버 101이기에 가능한 창의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 스노우드롭

발레 드 주의 풍경을 살포시 뒤덮은 눈 사이로 피어나는 종 모양의 흰색 꽃에서 영감을 받은 망세트 스타일의 스노우드롭은 섬세한 우아함을 드러냅니다. 페어형 다이아몬드가 한송이 꽃처럼 다이얼을 둘러싸고 있으며, 파도처럼 일렁이는 다이아몬드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꽃잎 패턴으로 브레이슬릿 주위까지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디자이너는 '그리프' 다이아몬드 세팅을 선택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메탈을 최소화하고 빛이 모든 각도에서 쟁스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강렬한 광채가 찬란히 빛나면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브레이슬릿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주얼리 장인은 130시간에 걸친 쟁세팅 작업에 몰두하여 페어형 204개와 브릴리언트 컷(총 20.9캐럿)으로 구성된 90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합니다. 옆에서 바라본 브레이슬릿은 다이아몬드를 그레인 세팅한 두 개의 골드 밴드가 브레이슬릿을 받치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레인 세팅은 메탈 표면에서 작은 골드 비즈를 들어올리고 스톤을 향해 밀어 넣어 단단히 고정하는 직선 세팅 기법입니다.

## 뱅글

뱅글 워치는 아르데코 특유의 우아한 기하학과 20세기 모더니즘의 강렬한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미를 대담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대칭과 비대칭이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브레이슬릿은 크기가 다른 996개의 다이아몬드(총 19.7캐럿)를 세팅하여 유려하게 흐르는 곡선을 강조합니다. 공예 장인들은 그리프 세팅(다이아몬드 144개)과 그레인 세팅(다이아몬드 852개) 기법을 결합하여 다이아몬드의 입체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찬란한 빛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표현합니다.

줄지어 늘어선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는 브레이슬릿의 양 측면을 따라 이어진 골드 밴드를 한층 더 강조하고 브레이슬릿 구조를 지지합니다. 양 측면을 살짝 돌려 여는 섬세한 오프닝이 적용되어 클래스프 없이도 브레이슬릿을 열 수 있습니다.

## 칼리버 101

예거 르쿨트르는 19세기 후반 이후 정교하게 발전한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소형화를 비롯해 다양한 시계학적 도전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0년에 소형 에나멜 및 쟁세팅 시계에 도입한 초소형 르쿨트르 칼리버 7HP 그리고 1908년에 제작된 1cm<sup>3</sup>를 조금 웃도는 크기의 르쿨트르 칼리버 6EB를 눈여겨 볼만합니다.

1929년에 등장한 칼리버 101은 초소형 사이즈와 정확한 타임키퍼를 결합하는 위대한 도전의 승리를 알린 걸작이자 예거 르쿨트르의 뛰어난 마이크로 기계 공학 기술을 구현한 결과물입니다.



칼리버 101은 단일 플레이트에 부품을 세팅하는 대신 1925년 그랑 메종이 듀오플랜 무브먼트를 위해 최초로 개발한 '스택형' 듀얼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케이프먼트와 배럴/톱니를 각각 다른 평면에 배치하고, 메인스프링은 케이스 베이스에 배치된 평평한 크라운으로 와인딩합니다.

지난 90여 년간 무브먼트는 소재와 가공 측면에서 많은 혁신을 통해 점차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크기와 구조만은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4세대 무브먼트인 칼리버 101/4는 부품 98개(오리지널 모델 78개), 크기 14mm x 4.8mm, 두께 3.4mm(0.2cm3), 무게 1g 수준의 사양으로 제작됩니다. 밸런스 휠은 시간당 진동수가 21,600회(3Hz)이며 메인스프링은 33시간 동안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모든 칼리버 101은 직접 생산하고 조정해야 하는 초소형 사이즈의 부품 덕분에 모든 제품은 고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소형 무브먼트를 제작하고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워치메이커 극소수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오직 한정된 피스의 작품만이 여성의 손목에 우아한 품격을 더합니다.

#### **특징:**

##### **101 스노우드림**

케이스 크기: 18.35 x 5.98mm

무브먼트: 칼리버 101 - 매뉴얼 와인딩, 33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 시, 분

다이얼: 실버 오팔린

브레이슬릿: 핑크 골드, 브릴리언트 컷 및 204개의 페어형 스톤(20.9캐럿)을 포함한 904개의 다이아몬드 세팅

제품 번호: Q2882201

##### **101 뱅글**

케이스 크기: 18.35 x 5.98mm

무브먼트: 칼리버 101 - 매뉴얼 와인딩, 33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 시, 분

다이얼: 실버 오팔린

브레이슬릿: 핑크 골드, 996개의 다이아몬드(19.7캐럿) 세팅

제품 번호: Q2892201



---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워치메이커들 중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

[www.jaeger-lecoultre.com](http://www.jaeger-lecoultre.com)